

# 도내 수소산업, 세계 시장 도약 발판 마련

### 전북자치도-아헤스, 인도 에너지기업과 협약 체결... 수전해 설비·그린수소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인도의 대표 에너지기업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은 전북 수소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29일 도내 수소전문기업 (주)아헤스와 함께 인도의 주요 에너지기업인 GH2 Solar, KPI Green Hydrogen & Ammoni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주)아헤스 이종희 대표, GH2 Solar의 아누라그 지인(Anurag Jain) 대표, KPI Green Hydrogen & Ammonia의 로비 라자세카람(Robbi Rajasekharan) 사장, KP Group의 모이놀(Moinul) 사장&전임이사 등 양측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참여 기업들은 △수전해 설비 기술 교류 △그린수소 분야 공동사업 추진 △인도 현지 시장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MOU는 전북 수소산업이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아헤스는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GH2 Solar와 5년간 총 3,76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20억 원 규모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인도 시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수소전문기업 아헤스는 인도의 주요 에너지기업인 지에체투 쉐라(GH2 Solar), 케이피아이 그린 하이드로젠 암모니아(KPI Green Hydrogen & Ammoni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GH2 Solar는 태양광 EPC와 그린수소·에너지저장 시스템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인도 기업으로, 2024년 인도 에너지공사(SECI)의 525MW 규모 수전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인도 구자라트에 본사를 둔 KP Group은 7.2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한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기업이다.

Ammonia를 통해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수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프로젝트와 관련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청년과 연구 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확

장은 전북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 수소기업의 기술력과 인도의 자본·시장을 결합한 협력 모델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기업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남원 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전통시장, 소상공인 연대 실천 공간”

### 전북자치도의회, 남원 공설시장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남원 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군산4)과 이정민 의원(남원1), 임종명 의원(남원2)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이만근 상인회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장보기를 이어갔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아

가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쌀, 생필품 등을 구매해 남원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소상공인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 주 71% 신청

###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부정 유통 시 환수·형사 처벌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첫 주 동안 총 115만500건, 1,151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1,627억원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청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60만19,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불카드 33만3,257건, 지역사랑상품권 20만18,107건 순이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8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및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시·군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 점검과 중과거래 플랫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중과거래에 재판매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또한 소비쿠폰 가맹점이 아닌 매장에서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위장가맹점 신고 시에는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사는 소비쿠폰 관련 URL, 배너 링크, 앱 푸시 알림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도는 문자로 전송되는 인터넷 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즉시 신고해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어려우나,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 전북자치도,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35사단, 시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민방위대는 1975년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창설되어, 국민 스스로가 국가 안보와 안전의 주체임을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전환점이자,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35사단, 시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민방위 유공자 표창, △민방위 대원의 신조 낭독, △민방위의 노래 제창, △민방위 안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

북특별자치도의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에게도 지사 표창 7점 및 35사단장 표창 3점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기리

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민방위 유공 도지사 표창 기관은 무주군, 개인은 정정에 순창군 순창읍 지역민방위대장 등 총 6명이 수상했고, 제35보병사단장 표창에는 유미자 약산시 동산동 지역민방위대장 등 총 3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민방위대는 창설 이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든든한 힘이었다.”며,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민방위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방위 정신이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클라우드 전환으로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

### 국정지원 화재로 도 251개 시스템 장애 발생... 전북도 2022년 민간 클라우드 전환 완료·현재 306개 시스템 정상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지원) 화재 사태 속에서도 선제적 클라우드 전환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정부는 총 647개 시스템(전국 지자체 251개 시스템)이 중단됐다. 전북도 주민등록·여권·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119 다매체 신고접수, 직불제 자격 검증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업무, 정부24 민원, 주민등록, 소방 신고시스템 등 71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돼 대부분의 민원 처리가 정상화된 상황이다. 내부 업무 시스템의 완전 복구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상황 대응 및 시스템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313개 시스템을 삼성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화재·지진·정전 등 사고 발생시에도 홈페이지 등 메인 서비스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보안을 고려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8개 핵심 시스템은 도청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나머지 295개 시스템은 서울 상암의 삼성SDS 퍼블릭 클라우드에 분산 배치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BCP)을 확보했다.

도는 화재 발생 직후인 27일 사고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29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행정부지

사 주재 점검회의와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기 처리 등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체 수단을 총동원했다.

장애 대응 매뉴얼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긴급 민원 처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도 나섰다. 특히 행정포털 GPKI 인증서 로그인 기능은 전국 최초로 자체 복구에 성공했다.

도는 2022년부터 ‘도내 정보시스템 대부분이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되며 70% 이상이 노후 장비’라는 운영 한계를 인식하고,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기반을 조성했다.

2023년 전환 완료 후 응답시간 55.6% 향상, 정보 처리량 67.5% 향

상, 전력사용량 86.8%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보안 측면에서도 중앙 집중식 관리를 통해 보안 위협 자동 대응과 보안관계 이중화를 실현했으며,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56.4% 감소시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국정지원 화재 사태는 디지털 시대 행정 인프라의 안정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 결을 든든하게 지키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024년 현재 72개 기관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 올 3분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에 속도를 내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3분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특례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전북특별법에는 131개 조문에 걸쳐 75개의 특례 사업과 과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59개 특례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16개는 시행 준비 단계에 있다. 도는 3분기 동안 정책 인프라 구축

부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구체적인 사업 실행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특례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3분기 성과 중 눈에 띄는 점은 고용, 의료, 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가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며 “모든 도민이 달린 전북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특례별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공동 대응 본격화

### 전북자치도-새만금청 협력회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규제혁신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발전시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은 29일 연구원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실현을 위한 전북자치도-새만금청 협력회의’를 열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대응 전략’과 ‘헬프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은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프 산업 클러스터’를 공동 대응 과제로 정하고, ‘공간계획과 산업·투자유치 전

략을 연계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 내 헬프 재배부터 연구·가공·의약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특례 제도화를 위한 연대 시스템도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선도모델로 제시된 △헬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 재생의료 실증 허브의 도입 당위성과 산업적 의미도 공유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며,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세밀하게 다룰 예정이다. 오는 11월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는 국회의 원실과 중앙부처, 학계 전문가 등이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본격 모색한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29일 현대차그룹 등 관계 기관, 스마트도시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청은 ‘탄소 중립 인공지능(AI) 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 기술 추세 분석과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한 9개 분

야 32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공개했다. 특히, 새만금청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협업 중인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특화된 미래 모빌리티 전략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택시), △미래항공모빌리티(AAM)등을 제안하며 에너지 허브인 새만금의 잠재력을 살려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리 플랫폼 등과 같은 에너지 특화 서비스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